경북북부 농촌지역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노동권 개선사업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는

안동을 중심으로 경북북부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권리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 ▶ 노동상담 :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구제 법률상담(임금체불, 산업재해, 사업장 이동 등)
- ▶ 의료지원 :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무료진료소 운영(계획 중), 건강보험 미가입 이주민 의료지원
- ▶ 한국어교실 :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한국어교실 운영(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용어, 사업장에서 필요한 노동법률, 기타 한국어 회화 등)
- ▶ 공동체 활동 지원 : 이주민공동체 활동 지원(체육대회, 각종 명절 및 종교행사 등)
- ▶ 이주노동자 쉼터 : 이주노동자의 거주권 보호를 위한 이주노동자 쉼터 운영
- ▶ 지역연대 : 관련 시민단체 및 노동단체와 연대



후원자분들의 소중하고 따듯한 후원으로 이주노동자와 함께 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고,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를 후원해 주십시오〉

- ▶ 정기후원 : CMS 자동이체 후원(매월 자동이체)
- ▶ 비정기후원 : 온라인입금, 직접방문후원, 생활용품(식료품, 의약품 등) 후원
- ▶ 후원계좌 : 농협 351-1156-5752-73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신한은행 100-034-961237
- ▶ 문의 : ☎ 054-858-2260 / email : bukbumigrants@gmail.com
- ▶ 주소 : 경북 안동시 옥동1길 19, 안동근로자종합복지관 내 민주노총

CALENDAR 2024

JANUARY

SU	MO	TU	WE	TH	FR	SA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FEBRUARY

SU	MO	TU	WE	TH	FR	SA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1	2

MARCH

SU	MO	TU	WE	TH	FR	SA
25	26	27	28	2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APRIL

SU	MO	TU	WE	TH	FR	SA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MAY

SU	MO	TU	WE	TH	FR	SA
28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JUNE

SU	MO	TU	WE	TH	FR	SA
26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6

JULY

SU	MO	TU	WE	TH	FR	SA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AUGUST

SU	MO	TU	WE	TH	FR	SA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SEPTEMBER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	2	3	4	5

OCTOBER

SU	MO	TU	WE	TH	FR	SA
29	3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NOVEMBER

SU	MO	TU	WE	TH	FR	SA
27	28	29	30	31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DECEMBER

SU	MO	TU	WE	TH	FR	SA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	2	3	4

2월 10일 설날
3월 1일 독립운동기념일
8일 여성의 날
21일 국제인종차별철폐의 날
4월 3일 제주4·3민중항쟁
16일 세월호참사추모일
19일 4·19혁명일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5월 1일 노동절
5일 어린이날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15일 부처님 오신 날
18일 5·18민중항쟁
6월 6일 현충일
10일 6·10민중항쟁
20일 난민의 날
8월 8일 미얀마8888항쟁
15일 해방절
17일 고용허가제시행
9월 17일 한가위
10월 1일 대구10월 항쟁
3일 개천절
9일 한글날
16일 부마항쟁
10월 17일 세계빈곤철폐의 날
11월 11일 농민의 날
13일 전태일열사추모일
12월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25일 크리스마스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계절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일지

아름다운재단 2023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 사업

날짜	2023.07.12. 수요일 (0회차)	장소	이주노동자 한국어교실
조사원	김헌주, 이하연, 이현우, 이철승, 조석옥, 안솔잎, 이재각		
내용	• 오리엔테이션 • 조사원 소개 및 실태조사 사업 안내 • 이주노동 관련 법률 개요 설명 및 주의사항 안내		
날짜	2023.07.13. 목요일 (1회차)	장소	안동시 풍산·풍천면
내용	• 풍산아시아마트에 경북북부 계절노동자 실태조사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 풍산아시아마트에 손님으로 오는 이주노동자들에게 경북북부이주노동자센터 팸플릿 배부 및 안내		
날짜	2023.07.19. 수요일 (2회차)	장소	안동시 풍산·풍천면
내용	• 풍산농공단지 현수막 부착 • 풍산농공단지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대상으로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팸플릿 배부 및 안내		
날짜	2023.07.26. 수요일 (3회차)	장소	안동시 서후면
내용	• 안동시 서후면 농업 계절이주노동자 설문 및 네트워킹 • 안동시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인터뷰 • 주변 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정보 수집		
날짜	2023.08.01. 화요일 (4회차)	장소	안동시 서후면
내용	• 안동시 서후면 농업 계절이주노동자 설문 및 네트워킹 • 안동시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인터뷰 • 주변 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정보 수집		
날짜	2023.08.05. 토요일 (5회차)	장소	영양군 수비면
내용	• 영양군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방문하여 실태조사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 영양군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인터뷰 • 영양군 농업 계절이주노동자 대상 설문 및 네트워킹 * 특이사항: E-8, C-4 비자로 가족들이 함께 거주.		
날짜	2023.08.06. 일요일 (6회차)	장소	안동시 옥동
내용	• 옥동근로자종합복지관 앞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홍보 부스 설치 및 상담 안내 • 안동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정보 수집		
날짜	2023.08.13. 일요일 (7회차)	장소	의성군
내용	•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홍보 부스 설치 및 상담 안내 • 의성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정보 수집		
날짜	2023.08.14. 월요일 (8회차)	장소	영양군 수비면
내용	• 영양군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방문하여 실태조사 사업 안내 및 협조 요청 • 영양군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인터뷰 • 영양군 농업 계절이주노동자 설문 및 네트워킹		
날짜	2023.08.31. 목요일 (9회차)	장소	안동시 와룡면
내용	• 안동시 와룡면에서 농업 계절이주노동자 설문 및 네트워킹 • 안동시 계절이주노동자 고용 농가 인터뷰 • 주변 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정보 수집		
날짜	2023.09.01. 금요일 (10회차)	장소	의성군
내용	• 의성지역 노동인권상담 캠페인 및 설문조사 네트워킹 • 새벽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커피 나눔, 마스크 및 휴대용손선풍기 배포		
날짜	2023.09.05. 화요일 (11회차)	장소	안동시 풍천면
내용	• 풍천지역 노동인권상담 및 설문조사 네트워킹		
날짜	2023.09.09. 토요일 (12회차)	장소	안동시 풍산 및 풍천면
내용	• 풍산 아시아마트 앞 경북북부 이주노동자센터 홍보 부스 설치 및 상담 안내 • 안동 풍천지역 계절이주노동자 정보 수집 및 노동인권관련 책자 배포		
날짜	2023.09.16. 토요일	장소	안동시 풍산공단 숙소
내용	• 사업장 변경을 요청하는 이주노동자 개별 상담 • 풍산지역 이주노동자들에게 노동인권관련 책자 배포		
날짜	2023.09.21. 목요일 (13회차)	장소	안동시 풍천면
내용	• 풍천지역 계절이주노동자실태조사 • 와룡지역 노동인권 상담 및 노동인권관련 책자 배포		
날짜	2023.09.24. 일요일 (14회차)	장소	의성군 일대
내용	• 의성지역 계절이주노동자실태조사 • 노동 상담 및 노동권/인권캠페인		

계절이주노동자 실태조사의 배경

안동을 중심으로 한 경북북부지역은 최근 안동의 바이오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바이오특별산업단지가 조성되기도 하는 등 제조업 중심의 사업장이 다소 있기는 하나 대부분이 이른바 농공단지로 조성된 소규모 공단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다. 또한 대부분 농업지역인 도농복합도시, 농업중심의 지역 중소도시 등이 모여 있다. 따라서 최근 심각한 농촌인력난을 겪고 있는 한국농촌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주노동자들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비자를 발급받아 농장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반농가들은 매번 일손부족을 호소하며 미등록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여 농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경북북부지역 각 지자체는 너도나도 앞 다투어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또한 유입되는 이주노동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제 계절이주노동자와 미등록노동자가 없으면 경북북부지역의 농촌사회는 그 유지가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노동권을 보호하지 않는 제도로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쳐왔다. 한편 이주노동자들을 고용하는 농가들도 대부분 영세한 소규모 영농을 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단기계절근로자나 미등록노동자를 위해 제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니 농민을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악마로 만든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각 지자체를 향해 이른바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계절이주노동자와 개별 농가의 어려움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에 경북북부지역에서 일하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의 현실을 파악하는 한편 계절이주노동자제도 자체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위해 이 설문조사를 계획하였다.

나아가 실태조사과정, 인권/노동권상담 과정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를 통해 개별 이주노동자들의 권리침해문제를 해결하고, 계절이주노동자제도의 보완/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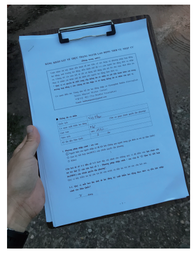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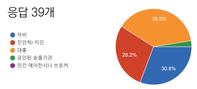




실태조사 결과

1. 현재 체류자격은 무엇입니까?

응답 39개



2. 계절노동자 출국 경비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응답 39개



3. 한국에 오기 전에 취업정보를 어디서 얻었습니까?

응답 39개



4. 근로계약서를 갖고 있습니까?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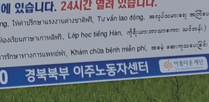
5. 본국 지자체 및 민간 브로커나 에이전시 등에게 추가로 지불한 돈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입니까?)

응답 3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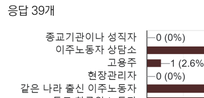
6. 한국 입국 후 노동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6-1. 연장근무시 급여

응답 39개



6. 한국 입국 후 노동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6-2. 월 평균 수입(총액)

응답 34개



6. 한국 입국 후 노동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6-3. 취업 연장 희망 여부

응답 39개

6. 한국 입국 후 노동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6-4. 숙소 내 화장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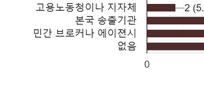
6. 한국 입국 후 노동환경에 관한 질문입니다.
6-5. 숙소 내 샤워실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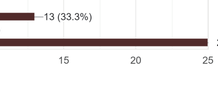
7. 근무처 변경이 있었습니까?

응답 39개



8. 민간 에이전시나 브러커에게 입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응답 39개



9. 급여 중에 강제적립이 있습니까?

응답 39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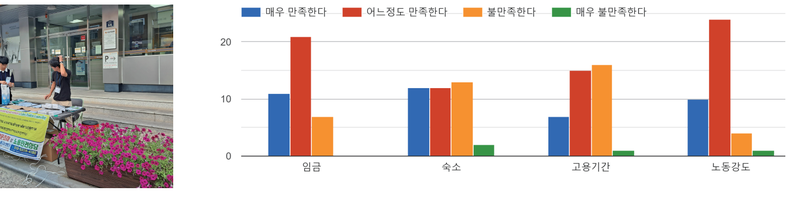


9-1. 9번에 '예'를 선택한 경우 강제적립은 누가 합니까?

응답 16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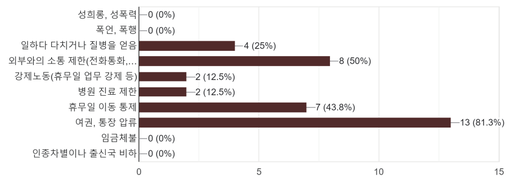


10. 출국 전, 한국의 취업/계약조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까?



11. 다음중 귀하가 근무처에서 경험하신 적이 있는 것을 모두 표시하여 주십시오. (복수응답)

응답 16개



12. 귀하는 자신이 당한 인권 침해에 대하여 다른 사람과 상담한 적이 있습니까? (복수응답)

응답 39개

13. 현 근무처의 노동환경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설명 그리고 덧붙이는 말

1. 한국에 오는 경비의 상당부분을 많은 계절 이주노동자들이 대출을 통해 조달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한국으로 계절노동을 하러 오는 이유가 경제적 이유임을 말하고 있다.(질문2)
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국에 와서 일하고 싶다는 이유이기도 한다.(질문6-3)

2. 취업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은 결혼이민자의 친인척(C-4) 자격으로 입국했을 경우에는 친척이나 지인을 통해, 지자체 MOU(E-8)를 통해 입국했을 경우는 본국 모집업체나 브로커, 에이전시를 통해서였다. 인력송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본국의 지자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습득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은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개선되어야 한다.

3. 출국 전 계약조건을 어느 정도 알고 온다고 여겨지나 현 근무처의 노동환경이 계약조건과 달라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숙소의 샤워시설은 모두 갖추어져 있으나 화장실의 경우, 공용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여성의 사생활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화장실이 딸린 숙소를 배정받은 이주노동자와 그렇지 못한 이주노동자들 간의 시비와 다툼이 예상된다.

4. 여전히 숙소가 너무 불편하다는 불만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개별농가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제대로 된 숙소를 제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는 지자체가 적극 나서서 제대로 된 기숙사를 제공하기 위한 방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도입하여 숙소문제를 공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5. 지자체간 MOU 체결을 통해 E-8비자로 입국한 이주노동자들은 민간에이전시에게 추가의 금품을 내고 있으며 급여 중 일부를 이들에게 적립 혹은 기탁하는 경우가 여전하다.

6. 휴일에 대한 질문에는 한 달에 하루도 쉬지 못했다는 대답도 많았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이틀정도 쉰다고 대답했다. 농번기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휴식을 법적, 제도적으로 일단 보장해야 한다.

7. 하루 근무시간이 대부분 10시간 정도라고 대답했다. 다행히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연장수당을 지급받고 있다고 대답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금이 2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최저임금위반으로 보이고 관계당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부분이라 여겨진다.

8. 단기체류와 계절적 실업의 문제로 인해서 이탈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E-8비자 이주노동자들은 이탈을 막기 위해 여권이나 등록증을 대부분 사업주가 보관하고 있으며 휴일이나 저녁 일과 후 외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질문11)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어달라는 질문에 어느 이주노동자는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인권을 보장해 달라'라고 적고 있다.

9. C-4비자 이주노동자들의 경우 이주노동자들을 초청한 결혼이주여성이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던 인력소개업자 역할을 하고 있다. 코로나 시기 미등록노동자들이 농가의 일자리를 찾을 때 결혼이주여성 혹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였고, 이는 계절이주노동자제도에도 이어지고 있다. 또한 E-8비자 노동자의 경우도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숙소를 제공해 준다는 명분으로 인력소개업을 하고 있는 업자가 개입되어 음성적으로 계절이주노동자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를 양성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공공형 계절노동자제도를 통해 일자리 소개의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이번 실태조사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실감하는 계기였다.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농가나 지자체 담당자의 협조가 없이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다.
이러다보니 설문의 내용이 왜곡될 수밖에 없었고 그나마 네트워킹을 통해 연결된 이주노동자들이 인터넷설문을 통해 응답한 설문이 제대로 된 응답을 하고 있다.
서술형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인터넷설문 응답자들이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 제도의 불공정한 운영을 알리고 있다.
특히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본국에 보증금을 맡기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응답도 인터넷설문 응답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11. 마지막으로 이번 실태조사는 현실적으로 이미 한국 내에 들어와 있는 계절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지켜나가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밝힌다. 계절이주노동자제도는 보완 및 시정이 불가피하지만 아울러 하루 빨리 폐기하고〈장기체류가 가능하고〉 노동권과 인권이 제대로 보장되는 다른 제도로 대체되어야 한다.